



## 호주, 밀 수확량 전망 상향 조정, 캐놀라 생산량 더 큰폭으로 증가

(Australia nudges up wheat crop forecast, raises canola more sharply)

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(ABARES)은 보고서에서 2023/24년 밀 생산량 전망치를 9월 2,540만 톤에서 2,550만 톤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. 또한, 이번 시즌 캐놀라 생산량 추정치를 기존 전망치 520만 톤에서 550만 톤으로 더 큰폭으로 늘렸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환경 때문에 밀과 캐놀라 모두 풍작이었던 지난 시즌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다.

## Strategie Grains, EU 유채 작물 추정치 상향 조정, 해바라기와 대두 삭감

(Strategie Grains lifts EU rapeseed crop estimate, cuts sunflower and soybeans)

Strategie Grains는 덴마크에서 기존 추정치보다 단수가 높고 서유럽에서는 그 정도가 적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올해 유럽 연합의 유채 수확량 추정치를 소폭 증가시켰다. 유지종자 보고서에서 유채 수확 추정치를 한 달 전 1,974만 톤에서 1,976만 톤으로 증가시켰으며, 이는 지난해 수준보다 1.6% 높은 수치이다. 수확 추정치는 연속 세 번째 상향 개정되었다. 이와 대조적으로 Strategie Grains는 루마니아의 낮은 추정치를 이유로 올해 유럽 연합의 해바라기씨 수확량 추정치를 이전 1,010만 톤에서 1,005만 톤으로 약간 줄였다.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7%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. 대두 수확량 추정치도 하향 조정됐다. 루마니아, 이탈리아, 헝가리, 프랑스의 공식 데이터 감소를 고려하면 수확량은 총 283만 톤으로 예상된다. 이는 이전 추정치인 299만 톤에서 감소했지만 여전히 작년 수확량의 거의 13%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.

출처: Thomson Reuters